

# 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국어 정답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41 | 42 | 43 | 44 | 45 |    |    |    |    |    |

### 해설

#### 1.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 발언의 특징을 이해한다.

‘위원 2’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제시하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였다. 이어지는 발언 [B]에서 ‘위원 1’은 자신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 2’가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중에서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A]는 건물 노후화나 전시 공간 협소 등 현재 미술관 여건과 관련지어 문제의 원인을 제시했다. ③ [C]에서 ‘위원 2’는 ‘위원 1’이 언급한 전시관 이전에 대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이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④ [D]에서 ‘위원 1’은 ‘위원 2’가 제안한 프로그램 다양화나 ‘위원 3’이 제안한 전시료, 관람료 인하 방안의 실행을 위한 예산 부족을 들어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⑤ [E]에서 ‘위원 2’는 예산을 지원 받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논의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 효과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한다.

사회자는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토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한다. 토의 앞부분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순서를 안내한 후 이에 따라 먼저 문제 원인을 논의하였고, ㉠에서는 토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였다. ㉡에서는 ‘위원 2’가 바로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였다.

[오답풀이] ① ㉠은 제시한 순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기 위한 질문이며, ㉡에서 토의 참여자들이 지닌 궁금증은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② ㉠에서 토의 목적을 환기하지 않았고, ㉡의 앞에 토의 참여자 간 의견 대립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에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은 발언 순서가 잘못된 부분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⑤ ㉠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은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질문으로 볼 수 없다.

#### 3. [출제의도] 토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파악한다.

‘위원 1’은 미술관의 건물 낙후, 공간 부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시 외곽으로 미술관을 이전하자는 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토의를 거치며 운영 위원들은 미술관을 이전하지 않고 문화 재단에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토의에서 언급한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와 같이 시 외곽에 제2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제안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 ‘위원 2’는 세 번째 발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 미술 대회를 여는 것을 프로그램 다양화 방법으로 제안했고, 다섯 번째 발언에서 예산 확보로 이러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위원 3’은 두 번째 발언에서 전시료, 관람료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고 ‘위원 2’의 다섯 번째 발언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이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하였다. ㉥ ‘위원 1’과 ‘위원 3’은 전시회 횟수가 줄었다는 미술관 상황과 관련하여 각각 첫 번째 발언에서 전시 공간 협소와 비싼 전시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위원 2’의 다섯 번째 발언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4. [출제의도] 발표를 듣고 반영된 계획을 파악한다.

발표자가 연구 논문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유기성 폐수 속의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 양보다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자료이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은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발표 앞부분에 폐수 속의 미생물들을 촬영하여 확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환경 공학 용어 사전에서 ‘유기성 폐수’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찾아 제시하고 있다. ④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그 구조가 드러난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⑤ ○○○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미생물 연료 전지의 연구 현황과 차세대 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에서 학생은 발표를 들으며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이 사실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정리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발표를 듣기 전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에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들으며 정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에서 학생은 발표를 들은 후에 발표에 활용된 자료의 출처를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하지 신뢰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학생은 자신이 해야 하는 과학 실험 동아리의 보고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 연료 전지 실험을 주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⑤ ㉤에서 학생은 축산 폐기물 처리에서 난방 연료를 추출한다는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발표 내용을 관련지어 발표를 들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초고>의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숙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청소년 개개인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안전한 전자 상

거래 결제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서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피해를 입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초고>의 2문단에서 청소년이 현금 결제 과정에서 결제 절차나 방법, 물품 배송 등의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 청소년의 피해 사례로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것,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을 보내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 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청소년은 교육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7.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보완한다.

<보기>의 (가)에는 전자 상거래 사기 피해 발생 품목 순위가, (나)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용한 전자 상거래 품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상당수 품목들이 (가)에 제시된 품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주요 이용 품목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초고>의 [A]에 제시된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추가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나)는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에서 주로 이용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이용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은 [A]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방안이나 그 기대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③ (가), (나) 모두 전자 상거래 피해 내용 신고나 그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④ [A]의 어떤 부분에도 청소년 전자 상거래의 2차 피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내용을 생성한다.

<조건>에 따르면, 글의 마지막 부분인 [B]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전망과 청소년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의적 표현으로 제시한 후 우리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①번이 [B]에 들어갈 글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전자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설의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③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과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이 쓴 수행 평가의 후기에는 학생이 국어 수행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내용과 함께 표절이 습관이 되어 버린 학생들의 글쓰기 습관, 표절의 문제점, 쓰기 윤리 준수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성찰하고 쓰기 윤리를 준수하겠다는 학생의 다짐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의 수행 평가 후기는 국어 수행 평가와 관련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성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의 수행 평가 후기에는 국어 수행 평가나 표절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학생의 수행 평가 후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쓰기 윤리를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이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학생의 수행 평가 후기에는 쓰기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자신의 글 쓰기 습관과 관련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역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학생의 수행 평가 후기는 쓰기 윤리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하지만 표절의 개념, 실태, 문제점, 해결 정책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표절의 해결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부적절한 표현을 고쳐 쓴다.**

㉠의 앞부분은 선생님의 말씀으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표절하는 것을 반복하면 잘못된 글쓰기 태도와 왜곡된 윤리 의식이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의 뒷부분은 역시 선생님의 말씀으로, 앞서 언급된 비윤리적 글쓰기가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그러므로'를 역접의 기능을 하는 접속어 '하지만'으로 고치는 것은 ㉠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지 못한다.

**[오답풀이]** ① ㉠의 뒤에는 '자신의 생각인 양'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은 '마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뒷부분에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는 '밝혀야'의 목적어인 '출처를'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짜집기'는 '짜깁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짜깁기'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은 '짜깁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글의 주제와 전후 맥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접사와 어미의 쓰임을 이해한다.**

㉠은 용언의 어간 '살-'과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고, 부사어 '홀로'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살-'은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은 용언의 어간 '자-'와 명사형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고, 부사어 '충분히'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자-'는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은 어근 '얼-'에 접사 '-음'이 결합한 명사로서 '시원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은 어근 '놀-'에 접사 '-이'가 결합한 명사로서 '건전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은 용언의 어간 '아름답-'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고, 부사어 '매우'의 수식을 받는다.

**[오답풀이]** ①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 ㉡과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 ㉣은 적절하나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은 ㉠에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것은 적절하나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것 중 ㉣은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과 ㉣은 ㉢에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은 적절하나 ㉢과 ㉣은 ㉢에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⑥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과 ㉡은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용언의 의미에 따른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한다.**

㉠이 주어 '글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기술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주어 '불씨가'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③ ㉢은 주어인 '그는', 목적어인 '벼슬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④ ㉣은 주어인 '그는', 목적어인

'일손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⑤ ㉤은 주어인 '형은', 목적어인 '책을', 부사어인 '책상 위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체'는 의존 명사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체'는 의존 명사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한다. '-째'는 접사로 '그대로, 또는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깍질째'는 '깍질'이라는 명사에 '-째'라는 접사가 붙어 '깍질 그대로 또는 전부'라는 의미가 되므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풀이]** ② '얹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얹은 체로'라고 써야 한다. ③ '푹푹한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푹푹한 체'라고 써야 한다. ④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산 체'라고 써야 한다. ⑤ '죽은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죽은 체를 했다'라고 써야 한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를 이해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붙는 연결 어미 '-아'가 'ㅎ-' 뒤에서 '-야'로 바뀌었다. 현대 국어에서도 '하-' 뒤에서는 '-어'가 나타난다. 활용형을 구성하는 모음의 조합을 보면 'ㄹㅏㅎㅏ야'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으나, 현대 국어의 '가득하여'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으므로,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용언 어간 '알-'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어미 '-아'가 선택된 것이다. '아라'는 '알아'를 연결 표기한 것이다. ②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용언 어간 '떡-'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선택된 것이다. '머거'는 '떡어'를 연결 표기한 것이다. ③ 15세기 국어에서는 '씨오-'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어미 '-아'가 선택된 것이고, 현대 국어에서는 '깨우-'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모두 모음 조화를 지킨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15세기 국어에서 용언 어간 '쁘-'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선택된 것이고, 현대 국어에서도 '쓰-'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선택된 것이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를 이해한다.**

주어진 글에서 조사 '와'와 '과'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와'와 '과'의 모음은 '나'로 동일하므로 모음 조화가 적용되는 이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17세기에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와'와 '과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겨슬'의 'ㄱ'과 'ㅡ'는 음성 모음에 해당하고, 'ㅎ'의 'ㅇ'은 양성 모음이다. 따라서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오술'은 체언 '웃'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체언 '죽'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오술'은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므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ㅎ'에서 '-더-'가 양성 모음을 지닌 'ㅎ-' 뒤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늑'과 '늑'의 차이는 둘째 음절의 'ㅇ'이 'ㅡ'로 변환된 것이다.

**[16~20] (사회) 김봉호, '미시경제학'**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하는 이부가격설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부가격설정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구매하거나 이용할 권리에 별도 가격을 부과하여 두 차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부가격설정은 소비자의 혜택을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되는 이부가격설정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 한다. ② 소비자에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③ 이부가격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17.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골프장 입회비를 낸 후에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두 차례 가격을 치르는 방식이다.

**[오답풀이]** ② 수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③ 두 상품을 묶어 파는 방식이다. ④ 소비자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18.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그래프에 적용한다.**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PbE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통신사는 소비자가 이용한 통화료에 기본요금을 부과할 것이므로 P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③ Q1에서는 P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형성된다. ④ OP×OQ이므로 사각형 OPEQ에 해당한다. ⑤ 수요 곡선은 수량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므로 가격 P보다 위쪽에 위치한 삼각형 PaE가 소비자 잉여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핵심 논지의 결론을 추론한다.**

㉠은 이부가격설정의 사회적 손실 보완이다. 지문에서 독점 시장의 사회적 손실은, 생산량이 적어 총잉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부가격설정을 통해 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려 총잉여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손실 보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늘어난다. ④ 생산량이 늘어나므로 '생산량이 줄어들어'는 적절하지 않다. ⑤ 소비자의 혜택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으로 흡수되므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책정하다'는 '계획이나 정책을 세워 결정함.'이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감정하다'는 '사물의 특성이나 참거짓, 좋고 나쁨을 감별하여 결정함.'이다. ② '배정하다'는 '몫을 나누어 정함.'이다. ③ '시정하다'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음.'이다. ⑤ '체정하다'는 '체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이다.

**[21~23] (갈래 복합) (가)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나) 이태준, '고완'**

**(가)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이 작품은 가사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태평사', '누항사'를 지은 노계 박인로의 연시조이다. 박인로의 문집인 「노계집」에 실려 있으며, 총 29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바위가 지닌 빼어난 점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위의 품성을 닮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 이태준, '고완'**

이 작품은 한국적 단편 소설의 한 경지를 이룬 작가로 평가받는 이태준의 수필이다. 그의 문장은 수려하고 고풍스럽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그의 필치는 이 작품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격을 지닌 옛것을 숭상하는 상고주의(尙古主義)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물건에 대한 애착과 존경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의 옛것과는 다른 서양의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생활의 흔적이 담겨 있는 조선 시대의 자기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선인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서적 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의 삶의 흔적을 담아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급하게 이루어진 현대의 물건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들이 행행하는 현실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탁연직립'한 바위의 속성을 속세의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속세의 사람들이 '탁연직립'한 속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6수>에서 화자는 '세정(世情)'이 너무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세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의 글쓴이는 우연히 얻은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정독하며 자신의 자취를 남겨 비로소 한 권의 책이 되는 옛날과, 인쇄의 덕으로 함부로 박아 돌려 순식간에 책을 만들어 소비하는 현재를 대조하며 현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신처럼 옛 것을 좋아하는 고완의 취미를 함부로 대하고,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

**22. [출제의도] 작품을 외재적 준거를 통해 감상한다.**

<보기>는 조선 시대 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문인들은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겼는데, 이때의 자연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은일(隱逸)의 선비들에게 자연은 번잡하고 혼탁한 세속과 대비되는 탈속적이고 이상적인 세계였고, 한편으로는 인간과는 사뭇 다른 빼어난 품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여 존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존경은 자연을 벗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제6수>에서는 세정이 수상하다고 하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산 좋고 물 좋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유정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우뚝 서서 높은 특성, 불변하여 더욱 굳은 특성을 인간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며 바위를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제3수>에서는 바위를 '고모진태', 즉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며 벗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탁연직립', 즉 빼어나게 곧게 서 있는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23. [출제의도] 소재에 투영된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한다.**

(나)의 '나'는 여러 물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여러 옛 물건에 대한 애정

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외국의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그가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한 것은 그것이 세밀하고 정교해서 작은 금만 생겨도 보기 싫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공예품을 두고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아버지의 '연적'을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대하고 있다. 이는 연적에서 아버님이 손수 주신 교훈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② 글쓴이는 '찰종 하나 술병 하나'가 아름다운 색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것들에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글쓴이는 '조선 시대의 공예품'을 두고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하였다. 이는 그것들이 워낙 순박하게 타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⑤ 글쓴이는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여기에 선인들이 정독한 자취가 있으며, 또 오랜 시간 동안 일확 일자를 쓰고 사란을 쳐 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책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4~29] (과학예술) P.U.P.A. Gilbert / W. Haerberli, '가법 색 혼합과 감법 색 혼합'**

색을 증시했던 회화 유파인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글은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을 색광의 혼합 방법인 가법 혼합과 색료의 혼합 방법인 감법 혼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색광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가법 혼합할 때 3원색이 모두 섞이면 흰색이 되고, 둘만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된다. 그런데 혼합된 색은 3원색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색료의 3원색인 자홍, 청록, 노랑을 감법 혼합할 때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만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된다. 그런데 색료의 3원색을 섞으면 섞지 않을 때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인상주의 화가는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다양한 색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물감을 섞는 것은 감법 혼합이므로 그들이 만든 색은 그리 밝지 않았다. 신인상주의 화가는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과 보색 대비의 효과를 활용하여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은 그리 선명해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혔다.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색광의 혼합 방법인 가법 혼합과 색료의 혼합 방법인 감법 혼합을 구체적인 실험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혼합 방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선명하게 대상을 그리려고 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색을 혼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③ 색광과 색료를 혼합하는 방식을 설명하였지만 색광과 색료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빛의 색을 표현하려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회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이 유파의 회화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25. [출제의도] 색의 혼합 원리를 이해한다.**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 된다는 것은 r, g, b 중 하나가 1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원색으로 색 삼각형에서 꼭짓점에 위치한다. 그런데 세 가지 색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으면

혼합색이 되므로 색 삼각형은 가운데에 위치한다. 채도는 색 삼각형의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므로 원색은 혼합색보다 채도가 높다.

**[오답풀이]**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자홍, 청록, 노랑인데, 이 세 가지 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은 파랑과 빨강, 청록은 파랑과 초록, 노랑은 초록과 빨강이 각각 1:1의 비율로 섞이는 지점, 즉 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③ 태양 빛이 빨강 물감에 닿으면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처럼,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가시광선 중에서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다. ④ 물감을 섞는 것은 감법 혼합으로,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섞어 만든 색은 검정으로 청록 물감의 색보다 명도가 낮다.

**26. [출제의도] 색의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하면 400~600nm만 투과되고, 그 다음에 위치한 필터 B를 투과하면 500~600nm만 투과되어 스크린에 초록이 나타난다. 또 백색광을 필터 B에 투과하면 500~700nm만 투과되고, 그 다음에 위치한 필터 A를 투과하면 500~600nm만 투과되어 스크린에 초록이 나타난다. 이처럼 두 필터의 배치 순서가 바뀌어도 스크린에 비치는 색은 같다.

**[오답풀이]** ② 필터 A에 백색광을 투과시키면 초록과 파랑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므로 청록, 필터 B에 백색광을 투과시키면 초록과 빨강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므로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③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나오는데, 그 뒤에 초록의 보색인 자홍 필터를 투과시키면 초록 파장을 모두 흡수하여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⑤ 필터 A의 투과율을 낮출수록 투과하는 빛이 줄어들어 어두워진다. 즉 색의 명도도 낮아지는 것이다.

**27. [출제의도] 색 삼각형을 이해한다.**

색 삼각형에서 g의 비율이 1인 지점은 꼭짓점에 있는 초록의 좌표로 이 좌표에서 ㉔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빨강의 비율이 0.5인 지점에 닿게 된다. 이 지점은 빨강과 파랑이 1:1의 비율로 섞여있는 자홍의 좌표이다.

**[오답풀이]** ① ㉓는 r, g, b가 모두 같은 값인 1/3이다. ② ㉔와 ㉕를 혼합한 색의 좌표는 ㉖보다 ㉔에 가깝다. 따라서 이 지점에 위치한 색의 채도는 ㉖의 채도보다 낮다. ③ ㉖의 파랑 비율은 0.4, ㉔의 파랑 비율은 0.2이다. ④ ㉖와 ㉔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r, g, b의 합은 여전히 1이므로 색 삼각형에서 혼합 색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8. [출제의도] 색의 원리를 예술 작품에 적용한다.**

신인상주의 화가 시냐크는 <무물가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그릴 때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여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였다. 또 고흐가 그린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도 파랑과 노랑, 초록과 자홍의 보색 대비가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① 그림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가법 혼합 원리에 의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② 원색의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 화가는 시냐크이다. ④ ㉖는 모네가 태양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해 그린 작품이다. ⑤ 모네가 ㉖를 그릴 때에는 색을 병치하여 혼합하는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29.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쓰였다.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단어로는 '제한'이 있다.

**[30~32] (현대 소설) 최윤, '희색 눈사람'**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던 시절의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개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강하원'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강하원'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고 자신의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 시절'의 경험은 '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시절'의 '나'는 도서를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우연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던 '안'을 만나게 되고, '안'의 제안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책을 비밀리에 인쇄해 발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일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나'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비밀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가 조직이 발각되어 책을 발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나'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인 '나'가 회상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 고백체로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 일을 겪으며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가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다.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지 않고 있다. 서술자는 '나'로 유지되고 있다.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고 있지 않다.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이다. '나'가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⑤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의 작품이다. 즉 액자 구조인데, 외부 액자는 '나'가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지문은 내부 액자에 해당하는데, 외부 액자와 내부 액자의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31.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게 타자는 '안'이다.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주체로 살아간다. '나'는 저녁 무렵 인쇄소로 '책자'를 인쇄하기 위한 일을 하러 갔다가 비밀리에 '책자'를 인쇄하는 일이 발각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급히 도망을 친다. '적색등'은 도망치는 길에 건널목에서 '나'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때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밀고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가 건널목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널목에서 있을 때인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울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 등을 보고 비밀리에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치고 있다. 이를 통해 '울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 등이 '나'를 억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의 폭력적인 속성을 보여 준다. ③ '나'는 '그들'과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집을 나섰으며, 발각되어 '책자' 발간을 위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우리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는 '나'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욕망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욕망하기에 '나'는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

를 헤맸'던 것이다.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 함께 '책자'를 발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나'가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안'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지닌 인물로 '책자'를 비밀리에 발간하려는 강한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은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발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이러한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이는 '나'가 '안'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안'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한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처지와 심리·태도를 이해한다.**

'나'는 '신문'에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한다. '신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렇다고 '나'가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나'는 '신문'이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을 통해 '열쇠'에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 때문에 '나'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심정과 관련해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④ '나'는 '안'이 나타나기를,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나'에게 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다. '병이 없는 신열'은 '나'가 그러한 고통을 겪었음을 나타낸다. ⑤ '나'는 자신의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하자 매우 아파한다. 그리고 거리를 헤매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절망한다. 그러다가 '나'는 '헌책방'을 떠올리고 '헌책방'에 '그들'이 남긴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헌책방'에 간다. '헌책방'은 '나'에게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인 것이다.

**[33~36] (인문) 석봉래, '논리와 심리'**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인지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분위기 이론, 심적 모형 이론, 환위, 믿음 편향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논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분위기 이론, 심적 모형 이론, 환위, 믿음 편향의 순서로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서술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일부 정의하고 있으나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인지 오류 이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다양하게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①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인 ②를 보면, 주어진 전

제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즉 모든 사각형에 음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각형도 뚜렷한 윤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적 모형이다. ③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④, ⑤ 두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적 모형이다.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④는 주어진 전제들이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⑥는 논리적으로 복잡한 정도에 따라 믿음 편향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음을 말한다. 즉 논리적으로 복잡한 정도는 믿음 편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④와 ⑥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④와 ⑥를 통해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③ ④와 ⑥를 통해 믿음 편향이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은 ⑥와 상충된다.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이미 믿음 편향이 일어나므로 ④와 ⑥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없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특칭은 전칭으로, 전칭은 특칭으로 바꾼다고 해도 바꾸기 전과 마찬가지로 전제에 특칭, 부정어 사용되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보기>의 논증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어진 전제들을 환위하면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진다. ② 심적 모형 이론에 따르면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삼단 논증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보기>에 제시된 삼단 논증은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볼 수 없다. ③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이 자신의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37~42] (고전 소설)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 (나) 작자 미상, '금령전' / (다) 작자 미상, '심청전'**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고전 소설 창작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비현실성 등 기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함께 고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기이성이 구현되는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7세기 소설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비현실성은 18세기에 이르러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현실성을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비현실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 간다. 한편 19세기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된 비현실성이 인물의 극단적 성격, 사건의 극적 전개 등과 함께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작자 미상, '금령전'**  
이 작품은 전기 소설로 '금방울전'이라고도 한다. 남 주인공이 '금령'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요귀를 퇴치하고, 요귀에게 잡혀 간 공주를 구한다는 설화적 요소

가 짙은 작품이다. 인물이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현실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 작자미상, '심청전'**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잘 보여 준다. 현실계의 인물인 심청이 수궁계의 도움으로 천자와 인연을 맺고 이후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실계와 환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 소설은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의 활약을 극대화했다. 따라서 전기 소설에서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4문단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했다고 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에서는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원적 세계관이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서 기이성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고 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의 요소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고 했다.

**38.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국정취가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이 이국정취로 인한 인물의 성격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금방울인 '금령'이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일이다. ② 해룡이 초현실적 존재인 요귀를 무찌르고 위협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에는 비현실성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③ 환상계에 속한 용궁 시녀가 심 소저와 함께 꽃봉 안에서 등장해 현실계의 존재들과 만나는 모습은 비현실적 요소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④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는 지극한 효성을 가진 인물이며, 그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 요소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39.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은 비현실성이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됨으로써 이것이 사건의 극적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할 때,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의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사건이 환상계의 질서에 의해 현실계에서 극적으로 전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장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에서 환상계와 현실계의 교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의 개별적인 독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수궁

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연결된 세계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A]는 구름 속의 목소리가 해룡에게 금령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해룡이 요귀가 있는 환상계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B]는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심 소저를 인당수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심 소저가 수궁에서 현실계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B]가 인물에게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③ [A]가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A]가 인물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⑤ [A]가 인물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작품 간 비교를 통해 변이 양상을 파악한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모티브가 되는 설화로서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설화의 변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요귀를 찾아가지만, (나)의 남주인공인 해룡은 요귀에게 잡혀간 금령을 구하기 위해 요귀를 찾아가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설화에서 남주인공이 찾아 간 요귀의 거처에는 공주들이 잡혀 있었다. 또한 (나)에서도 요귀의 거처에는 잡혀 온 공주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설화와 (나) 모두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을 배신하는 부하들로 인해 남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하기 위해 바구니를 이용하지만, (나)에서는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설화에서는 초현실적 존재인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남주인공을 요귀의 거처로 인도하고, (나)에서는 구름 속에서 신이한 목소리가 들려 해룡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④는 '용녀'가 꽃봉 밖의 상황을 살피다 인기척에 도로 꽃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낯선 세계로 오게 된 용녀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이 장면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은 해룡의 적대적 대상인 요귀가 갑자기 출현하는 장면으로, '벽력같은 소리', '주홍 같은 입'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② ㉡는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해진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남전산 봉래동'이라는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환상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③ ㉢는 바람과 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환상계에서 온 꽃봉의 초월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위엄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43 ~ 45] (현대시) (가) 김광균, '노신' / (나)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가) 김광균, '노신'**  
화자인 시인이 일상에 관한 문제에 고뇌하면서도 시

를 쓰는 행위를 통해 문학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신념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적 현실과 당대 시단의 갈등 국면에서 자신의 예술적 방향성을 고민했던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시에는 시인이 앓고자 했던 중국 작가 '노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으며 시의 화자는 혁명의 혼란기에 쓸쓸하고 고독하게 예술적 성취를 이룬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동일시하고,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화자가 청동오리떼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성찰로 나아가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먼 바다 건너에서 날아오기 위해 고행한 새들의 삶을 통해, 욕심과 집착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부끄러움을 느낀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헛된 욕심을 털어내고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가)에서는 '여기 하나의 삼심한 사람이 있다.'와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와 같이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더 추워야겠다'와 '한껏 가난해져야겠다'와 같이 유사한 시구를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는 점층적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에서는 의성어의 활용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서는 '카랑카랑'을 통해 새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찾기 어렵다. ⑤ 여정에 따른 공간 이동은 (가)와 (나)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가)의 작가인 김광균의 개인적 생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의 화자가 시를 쓰는 것에 대해 고뇌한 모습과, 중국 작가 '노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이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배개 아래라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생활의 문제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시를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잠을 못 이루는 사내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했던 시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해방 이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시인이 느낀 피로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가 권 등불이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로 바뀌는 것은, 힘들고 고독한 상황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신'의 삶을 시인이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시인은 '노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45.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머연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과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것은 '살얼음 깔려드느' 힘든 현실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새떼들의 모습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은 먼 바다를 건너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는 치열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스스로를 무거운 존재로 인식하며 '관절통'을 호소스러운 것으로, '그리움'을 속되고 앓은 것으로 인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